

고전음악의 이해

2016025041 소프트웨어전공 하태성

2016년 11월 30일

고전음악 음악회 감상리뷰

저는 좀 특별하게 이번 여름 방학 때 빈에서 갔던 음악회 감상 리뷰를 쓸려고 합니다. 전 지난 여름방학 때 대략 2주전부터 급하게 준비를 해서 1달간 혼자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달동안 7개의 국가를 다니며 여러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음악회를 본 감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빈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저녁이라 숙소에 짐을 풀고 자세한 구경은 내일 하자는 생각으로 가볍게 중심지에 산책 삼아 나갔었습니다.



혼자서 카메라 들고 여유롭게 걷고 있는데 어떤 눈에 띄는 극의상 같은 것을 입으신 분이 다가와서 혹시 음악회 볼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가볍게 홍보를 무시하고 지나갔겠지만 빈까지 왔는데 혹시 바가지라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음악회를 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내일 저녁에 하는거라고 무겁고 딱딱하기보단 가볍고 재밌게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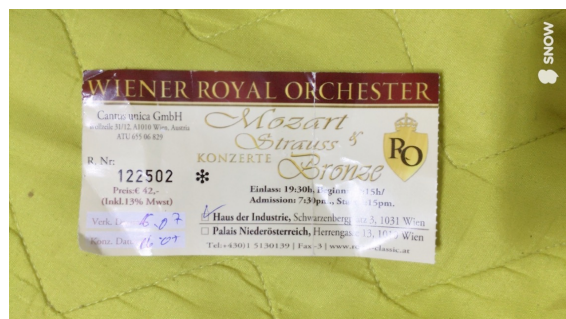
었다고 학생은 할인도 해준다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보기로 결정해 돈을 내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오전~저녁까지 빈 시내 구경을 하고 드디어 음악회 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처음에 오라고 했던 장소로 갔는데 길을 잘못들어 서 늦을뻔했지만 다행히 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안내해줘서 앉아보니 홍보할 땐 발코니라고

해놓고 1층 제일 구석자리여서 좀 기분이 안좋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보기로 했습니다. 지휘자가 들어오고 연주자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미리 말한대로 공연은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노래도 어디선가 많이들어본 노래들이였고, 남녀 성악가들도 나와서 마치 작은 오페라처럼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발레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기악 반주에 어울리는 발레를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중간에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다 나가고 관객들이 우르르 일어나길래 아 벌써 끝났나? 싶었는데 잠깐 홀에 가서 간식과

음료를 한잔씩 마시고 쉬는시간처럼 다시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뒷부분을 놓치고 그냥 갈 뻔 했었습니다. 전반부가 좀 부드러운 발레나 성악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고하면, 후반부는 좀 더 박진감있고 신나는 노래들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클래식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부분 정말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노래들이었습니다. 지휘자나 연주자도 중간중간에 상황극(?)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에 신나고 웅장한 곡으로 마무리하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칠 땀 아 정말 음악회 한 번 보러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유명한 빈에서 음악회를 감상하니 뭔가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클래식은 고전적이고 지루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좀 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전환점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이든, 모차르트, 브람스, 악기 박물관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기념관/박물관들을 찾아 다니게 된 것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가면 이 수업, 고전음악이 이해를 신청하게 된 것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음악회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악기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가 정말 귀에 쏙쏙 잘 들렸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에 플루트를 배운적이 있어서 그런지 맑은 플루트 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영상으로 듣는 것과 실제로 공연장에서 직접 듣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좀 더 울리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악도 직접 들으니 사람 한 명이 그 홀 전체에 가득 울리도록 노래를 하는것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광고나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 같을 때 들어본 음악들을 실제로 연주와 함께 들으

니 되게 색다르고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명한 오페라나 뮤지컬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거 말고 이런 음악회라도 또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